

<b>책 임 자</b>	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진성 본부장(☎2173-0560)	<b>담 당 자</b>	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진선 팀장(☎2173-0504)
<b>배 포 일</b>	2019년 12월 17일	<b>배 포 부 서</b>	우리금융경영연구소 그룹역량제고기획팀

## 「대한민국 대중부유층의 노후준비와 자산관리」

대한민국 대중부유층, 57%는 노후 예상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나 노후준비에 대한 자가평가는 “보통”,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 희망

-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(www.wfri.re.kr)는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“대중부유층(Mass Affluent)의 희망 노후생활과 준비현황”, “대중부유층(Mass Affluent)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자산관리 니즈” 보고서를 발간

  - 대중부유층이란 중산층보다는 부유하면서 기존의 PB서비스 대상 고액자산가보다는 자산이 적은 계층을 의미
  -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2월 국내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행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12월 17일 대중부유층의 노후 준비에 보다 초점을 맞춘 분석 보고서를 발표
  - 가구 연소득 6,800만~1억 2,000만원(세전)\*인 가정을 대중부유층으로 정의하고 동 기준에 해당하는 전국 4,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~9월 설문조사 실시
    - \* 중산층(중위소득의 50~150%)과 상위 10%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~30%에 해당
    - \*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은 “[붙임1]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” 참조
- 조사대상자의 평균 총자산은 6억 5,205만원으로 이 중 77.3%가 부동산 자산이며 대출은 9,220만원 (그래프1)

  - 부동산 자산은 5억 3,295만원으로 총 자산의 77.3%이며 금융자산은 1억 1,910만원으로 19.4%를 차지
  - 대출 9,220만원, 임대보증금 2,790만원 등 부채 1억 2,010만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5억 3,200만원
- 응답자의 57.0%는 노후 예상소득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 (그래프 2)

  - 대중부유층이 응답한 노후의 월 필수생활비는 225만원, 필수생활비를 포함하여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(여유생활비)는 374만원(가구 기준)

- 응답자의 91.5%는 예상소득으로 필수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57.0%는 여유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
- 예상 소득이 여유생활비보다 적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교육비 지출(23.8%), 높은 주택구입 비용(20.4%) 등을 주요 사유로 응답 (그래프 3)

■ **노후 준비 정도를 자가평가한 “노후 준비스코어”는 5점 만점에 평균 3.5점으로, 대중 부유층은 스스로 노후에 대해 보통(中) 정도는 준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·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인 반면, 경제적 준비도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**

- \* 노후 준비스코어는 경제, 관계, 건강, 자아실현의 4가지 요소에 대해 5단계 척도로 평가한 요소별 스코어를 응답자가 생각하는 각 요소별 중요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
- 경제, 관계, 건강, 자아실현 중 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, 스스로의 경제적 노후 준비 정도는 3.4점으로 4가지 요소 중 가장 낮게 평가 (그래프 4,5)
- 가족·사회적 관계에 대한 준비 정도가 3.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, 자아실현과 건강에 대한 준비 정도는 3.5로 평가 (그래프 5)
- 총점을 상(上), 중(中), 하(下) 3단계로 분류 시, 상은 30.6%, 중은 67.3%, 하는 2.1%의 비중을 차지 (그래프 6)

■ **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후 여유생활비에 대비가 되어 있음에도 노후준비스코어가 “상”인 응답자는 1/3에도 미치지 못해, 실제 준비정도에 비해 스스로의 노후 준비 정도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임**

■ **대중부유층의 노년기 희망 라이프스타일은 경제형, 레저형, 자기개발형 순으로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공식적인 은퇴 후에도 능동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(그래프 7)**

- 본격적인 은퇴 이후에도 여력이 닿는 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겠다(경제형, 35.3%)는 응답자의 수가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기겠다(레저형, 32.4%)는 응답자의 수를 상회
-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(자기개발형, 15.6%), 전원 등에서 편하게 쉬는 삶(안식형, 11.6%), 손자녀 양육이나 사회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삶(봉사형, 5.3%)은 다소 낮은 선호도를 보임
- 일본\*은 안식형(54%), 경제형(21%), 레저형(21%) 등의 순으로, 미국\*\*은 안식형(53%), 레저형(52%), 경제형(37%), 봉사형(31%) 순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중부유층은 은퇴 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

\* “Spotlight on Retirement”, 일본 계리사협회, 2018 (복수응답)

\*\* “Successful Retirement-Health Aging and Financial Security”, Aegon, 2017 (복수응답)

■ **노후 예상 소득의 원천으로 연금(공적, 개인, 퇴직, 주택연금)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며 연금 중에서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음**

- 노후 예상 소득에서 연금이 57.5%를 차지했으며, 그 다음 순위로는 근로소득이 16.9%였고,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(그래프 8)

- 연금 중에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60.9%, 주택연금 15.3%, 개인연금 15.2%, 퇴직연금 8.7% 차지 (그래프 9)

- 44.9%의 응답자는 노후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활용하겠다고 답변 (그래프 10)

■ **응답자들은 자산관리에 있어 3~5년 내에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일 계획이며, 금융자산 중에는 연금, 저축성보험 상품의 비중 증가를 계획 (그래프 11, 12)**

-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 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각각 77.3%, 19.4%이나 향후에는 부동산 비중을 67.0%까지 낮추고 대신 금융자산의 비중을 24.7%로 높일 계획
- 현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예적금이 50.0%, 개인연금 18.9%, 저축성보험 12.7%로 안전 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에도 안전자산 선호는 유지될 전망이나 예적금은 47.6%로 비중을 소폭 낮추고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은 19.9%, 14.6%로 증가시킬 계획

■ **대중부유층의 자산형성 주 목적은 노후준비와 현재의 여유 있는 소비, 자녀에 대한 지원이며 응답자의 77.6%가 연 3~7%의 수익률을 기대**

- 자산 관리의 목적으로 노후준비를 답한 비율이 31.4%로 가장 높았으며, 생활비의 여유 있는 지출이 25.2%, 교육 등 자녀를 위한 지원이 21.0%로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 (그래프 13)
- 기대 수익률로 3~4%대를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8.9%, 5~7%대를 답한 응답자가 38.7%로 현재 금리 수준과 응답자들의 안전자산 위주 포트폴리오 고려 시 가능한 수준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향을 보임 (그래프 14)

■ **응답자의 17.7%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33.6%는 향후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을 표시**

- WM을 사용해 본 응답자의 48.2%가 보험사에서, 29.6%는 은행에서, 22.2%는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았으며, 89%는 전문 상담사로부터 대면 서비스를 받았고 11%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를 경험 (그래프 15)
- 향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33.6%, 중립적이라는 답변은 48.0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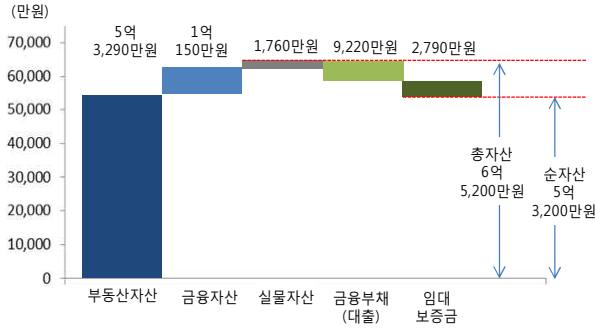
■ **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전문성이며, 모바일 기기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**

-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한 금융회사 선정 시 전문성(42.7%)과 상품·서비스의 범위(28.8%)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 (그래프 16)
- 대면서비스를 원한다는 응답이 64.4%로 모바일 앱(17.1%), 이메일(9.4%), 메신저나 챗봇(9.1%) 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 (그래프 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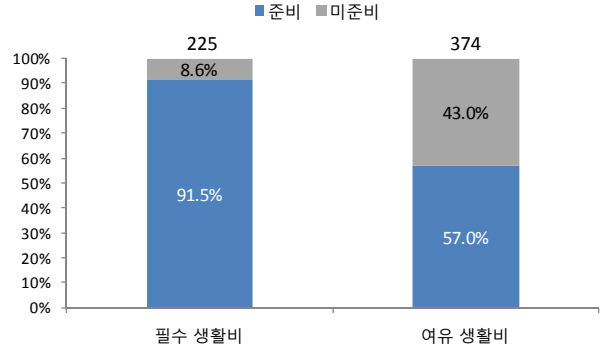
■ **대중부유층은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있음에도 그간 고액자산가 위주의 자산관리 서비스로부터 다소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들은 대중부유층에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**

- 대한민국 대중부유층은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노후준비를 목표로 한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질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험은 적은 고객층
- 금융회사는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있는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상 고객을 대중부유층 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익기반을 다양화 할 수 있으며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음
- 대중부유층이 위험선호도가 낮고 연금, 저축성보험 등 시중 금리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 하는 장기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부유층 대상의 금융 포트폴리오나 노후 준비를 위한 라이프사이클 자산관리 서비스 등 대중부유층 특화 서비스 개발 필요
- 대면 채널을 통한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대중부유층을 대상으로 대면·비대면 혼합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요구에 부응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

[그래프 1] 응답자의 평균 자산·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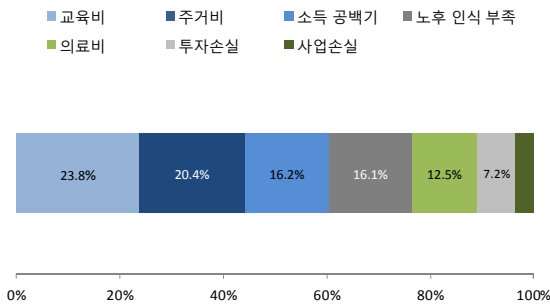


[그래프 2] 노후비용 준비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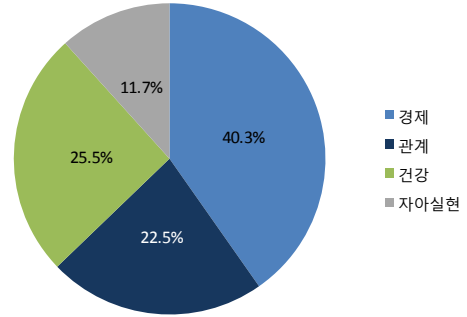
주: 막대 위 숫자는 필요생활비 (단위: 만원)

[그래프 3] 노후비용 준비 부족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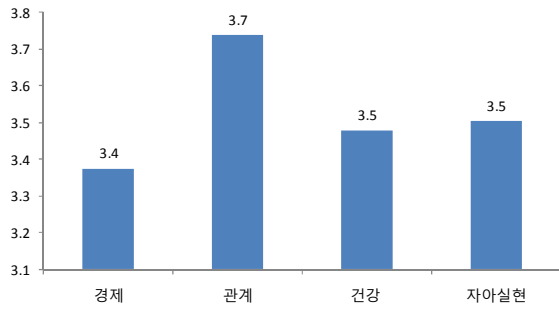


주: 여유생활비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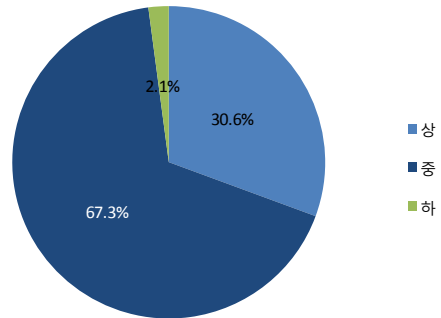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4] 노후 요소별 가중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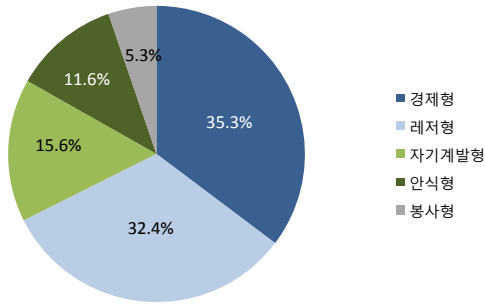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5] 노후 요소별 준비 스코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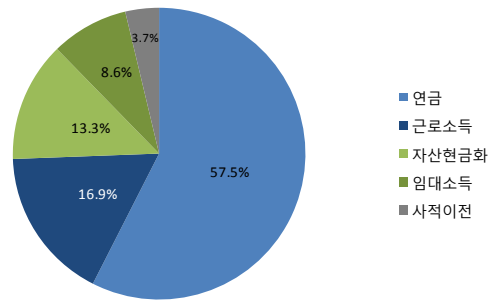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6] 노후 준비 스코어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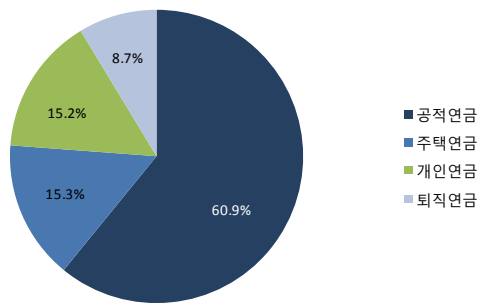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7] 노후 희망 라이프스타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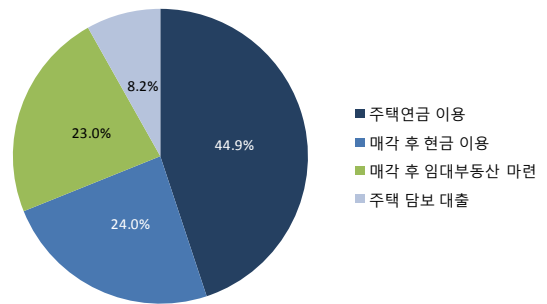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8] 노후 예상 소득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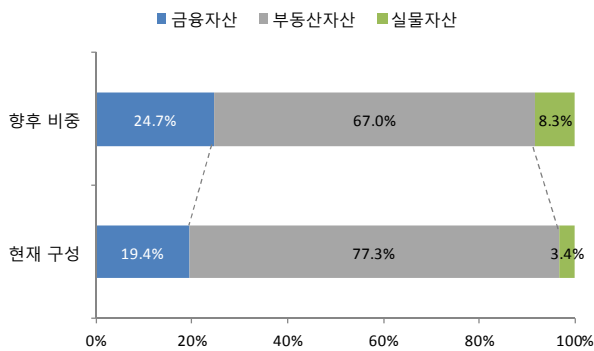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9] 노후 예상 소득원 (연금 세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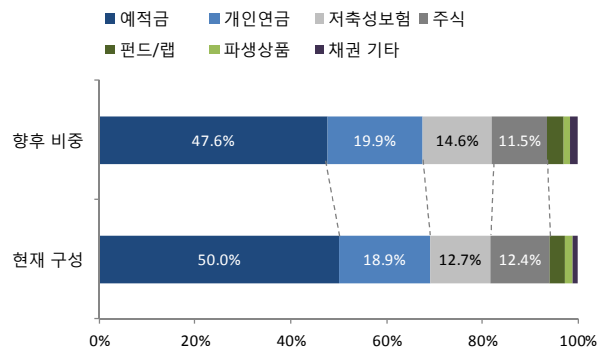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10] 노후 주거용 부동산 활용 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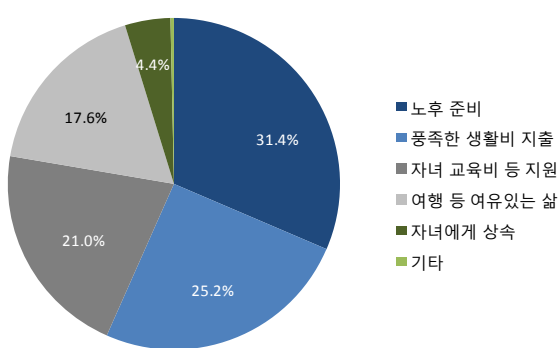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11]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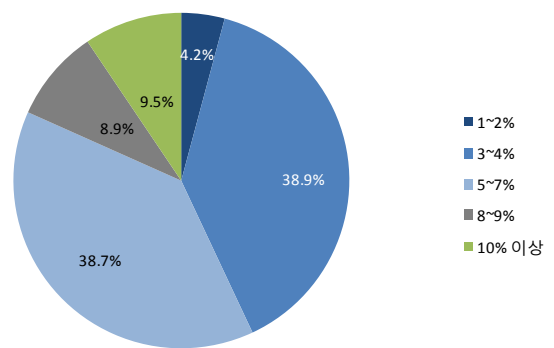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12]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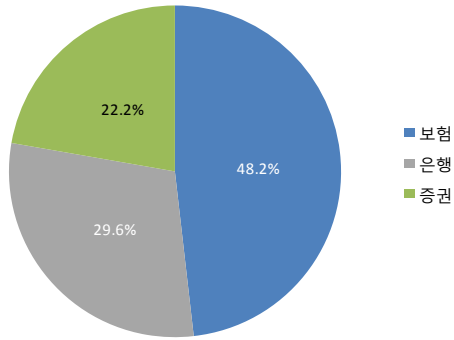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13] 자산관리의 목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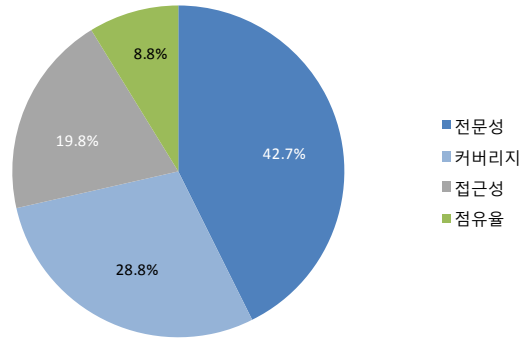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14] 기대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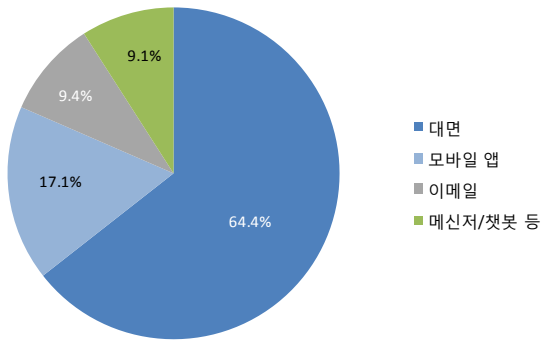
[그래프 15] 자산관리를 받은 금융기관



[그래프 16] 자산관리 금융회사 선정 시 고려 요소



[그래프 17] 선호 자산관리 채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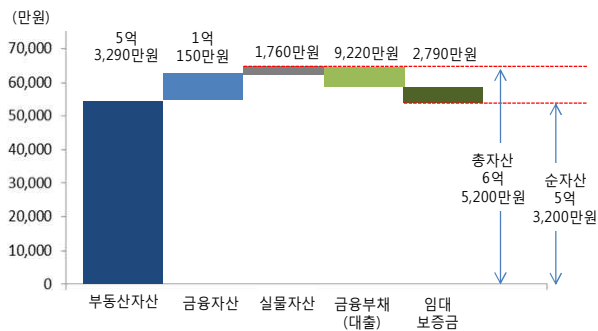


## 붙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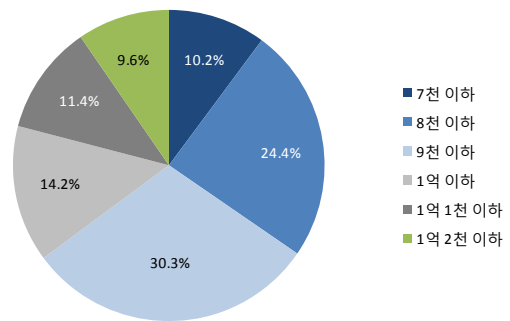
##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

- 응답자의 총 자산은 평균 총자산은 6억 5,206만원(금융자산 1억 150만원, 부동산자산 5억 3,295만원, 실물자산 1,761만원), 부채 1억 2,003만원(금융부채 9,216만원, 임대보증금 2,787만원)을 제외한 순자산은 5억 3,203만원
- 연소득은 “8,000만원 초과 9,000만원 이하”가 30.3%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“7,0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”가 24.4%, “9,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”가 14.2%, 1억원 초과가 21%로 분포

### 평균 자산·부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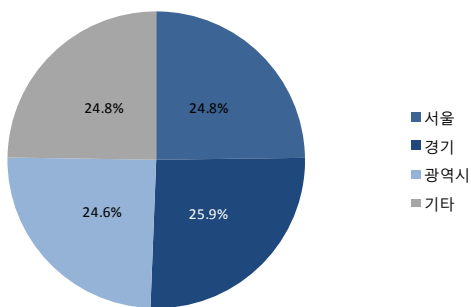


### 소득구간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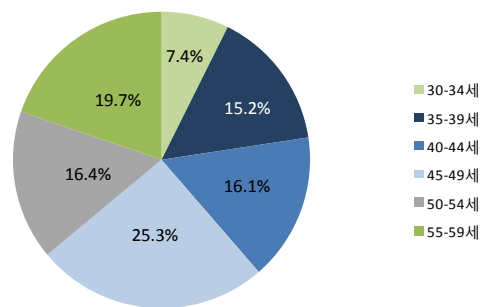


- 지역별로는 서울, 경기, 6대광역시 및 기타도시의 응답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경기의 비중이 25.9%로 다소 높음
- 연령은 가정 내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주소득자를 기준으로 30~59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0대의 비중이 41.4%로 가장 높고 30대 22.6%, 50대 36.1%의 분포를 보임

### 지역별 분포



### 연령대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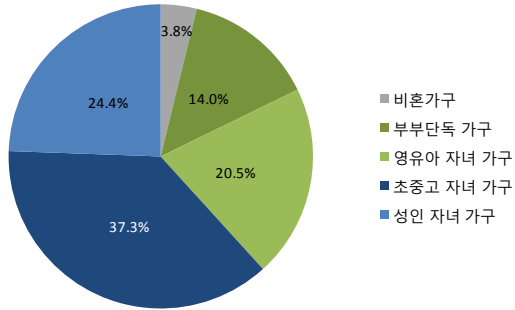


- 가족생활주기별로는 초중고 자녀 가구가 37.3%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자녀 가구(24.4%), 영유아자녀 가구(20.5%)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, 부부단독 가구(14.0%), 비혼 가구(3.8%)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
- 맞벌이가구 비중은 60%로 일반적인 가구의 평균인 44.6\*보다 높은 편이나 이는 소득이 다소 높은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



\* 통계청의 「지역별고용조사(2017)」에서는 유배우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산출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비혼 가구는 외벌이로 분류

가족생활주기별 분포



소득원수 분포

